

주간 통일정세

2018-12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3.20	EU “한반도 평화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압박·대화 함께 가야”(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3.20	작년 남북협력기금 9천 178억 지출…2016년보다 875억 많아(연합뉴스)
	3.22	‘예술단 평양공연’ 사전점검단 오늘 고려항공편으로 방북(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 특이사항 없음.

나. 국제사회

2018. 3. 20.

■ EU “한반도 평화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압박·대화 함께 가야”(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장관은 19일 유럽연합(EU)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오찬 협의의 참석,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합의 등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또 EU 외교장관들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개최를 추진 중인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함.
- 모게리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4월 정상회담은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북한의 초청을 수락한 것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EU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런 압박을 유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면서 “우리(EU와 한국)는 제재를 통한 압박과 협상에 이르게 하는 대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우리는 향후 몇 달간 한반도에서 평화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드문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냄.

2. 남북 교류협력

2018. 3. 20.

■ 작년 남북협력기금 9천 178억 지출...2016년보다 875억 많아(연합뉴스)

-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에서 9천 178억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2016년보다 875억 원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12~19일 서면심의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
- 지출액 대부분은 경수로 사업 추진 관련 원리금 상환(8천 470억원)에 들어갔으며,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등 사업비와 기금관리비에는 각각 684억원과 24억원이 사용되었음.

2018. 3. 22.

■ '예술단 평양공연' 사전점검단 오늘 고려항공편으로 방북(연합뉴스)

- 우리 예술단의 4월 초 평양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함.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인사 1명, 공연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갈 예정임.
- 이들은 공연이 예정된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을 방문해 조명과 무대, 음향 등을 점검한 뒤 24일 귀환할 계획이며, 예술단 숙소로 사실상 확정된 고려호텔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됨.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3.18	北통신 “리용호, 스웨덴과 회담서 쌍무관계·상호관심사 토의”(연합뉴스)
	3.19	北최강일, 헬싱키 도착…핀란드측 “美 현직관료는 안만날 것”(연합뉴스)
	3.20	北김정은, 러시아 푸틴에 대통령 재선 축전(연합뉴스)
		‘스웨덴 방문’ 리용호 北외무상 평양행…회담 내용 언급 없어(연합뉴스)
		北통신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IPU 총회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3.21	北 김영남·박봉주, 中 리잔수·리커창에 축전(연합뉴스)
	3.21	北통신 “남북·북미관계 시작에 불과…점잖게 처신할 때”(연합뉴스)
3.22	北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13기 6차회의 소집”(연합뉴스)	
군사	-	-
경제	3.18	유엔에 꼬리잡힌 북 제재회피 꼼수…5억원대 다이아몬드 수입도(연합뉴스)
	3.20	방북 日언론인 “北경제 나쁘지 않아…무역거래 등엔 어려움”(연합뉴스)
	3.22	“北도지생산성 1990년 수준 연구기관 분석 나와”(연합뉴스)
사회 문화	3.17	“北 ‘아리랑 공연’ 올해 재개…중단 4년만”(연합뉴스)
		서울엔 ‘따릉이’, 평양엔 ‘러멍’…평양서도 공유자전거 인기(연합뉴스)
외교 국방	3.17	북·스웨덴, 17일까지 회담 연장…“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연합뉴스)
	3.18	北매체, 日에 대북정책 재고 압박…“평양행 차표 못구할수도”(연합뉴스)
	3.20	헬싱키서 북미 연이틀 만찬회동…“북측, 남측에 믿음 강해 보여”(연합뉴스)
	3.21	RFA “美해안경비대, 北관련 선박 200척 이상 감시 중”(연합뉴스)
		베트남 “안보리 제재 따라 특정품목 대북 수출입 일시 중단”(연합뉴스)
	3.22	北신문 “美, 인두집 쓴 야수…적대시정책 변할 수 없어”(연합뉴스)
		북·러, 경제협력위 의정서 조인…양국 경제협력 방안 논의(연합뉴스)
3.23	北신문 “美 대북제재 유지는 적대정책 철회 않겠다는 것”(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3. 20.

■ 北김정은, 러시아 푸틴에 대통령 재선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러시아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당신(푸틴)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며 “당신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재선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국 인민의 커다란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고 밝힘.
- 그러면서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계속 심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3. 18.

■ 北통신 “리용호, 스웨덴과 회담서 쌍무관계·상호관심사 토의”(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리용호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에서 ‘쌍무관계와 호상(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18일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 동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웨덴 왕국을 방문하여 스테판 뢰벤 수상을 의례방문하였으며 마르고트 엘리자베스 발스트룀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의례방문과 회담에서는 쌍무관계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함.

2018. 3. 19.

■ 北최강일, 헬싱키 도착…핀란드측 “美 현직관료는 안만날 것”(연합뉴스)

- 핀란드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핀란드 헬싱키에 18일(현지시간) 도착함.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 부국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탑승한 항공편이 이날 오후 2시 이후 헬싱키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현지 경찰의 호위 속에서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짐.

2018. 3. 20.

■ ‘스웨덴 방문’ 리용호 北외무상 평양행…회담 내용 언급 없어(연합뉴스)

- 스웨덴을 방문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음.
-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1시10분께 서우두 공항 제2 터미널 귀빈통로를 통해 고려항공 JS152편을 타고 평양으로 향함.
- 리 외무상은 주중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귀빈실로 들어갔으며, 스웨덴에서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장관과의 회담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음.

■ 北통신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IPU 총회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리종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국제의회동맹(국제의원연맹) 제138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전함.

■ 北 김영남·박봉주, 中 리잔수·리커창에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선출된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나는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바라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라는 김영남 위원장의 축전 내용을 전함.
- 중앙통신은 또 박봉주 내각 총리가 18일 중국 총리에 재선임된 리커창(李克強)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축전은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 “외무상 리용호 동지는 19일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왕이에게 축전을 보내었다”고 덧붙임.

다. 주요 기관 행위

2018. 3. 22.

■ 北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회의 소집”(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내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주체107(2018)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함.
-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는 지난해 4월 11일 개최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3. 21.

■ 北통신 “남북 북미관계 시작에 불과…점잖게 처신할 때”(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국의 전·현직 관료와 일본 아베 정권, 남한 보수세력 등을 겨냥해 “지금은 자제와 인내력을 가지고 매사에 심중하면서 점잖게 처신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이날 ‘황당한 궤변으로 진실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직은 북남(남북) 관계도 조미(북미) 관계도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서로 상대의 의중도 모르는 때에 당사자들이 마주 앉기도 전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분위기를 흐려 놓으며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야말로 줌스럼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밝힘.
- 중앙통신은 “시비군들은 북남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똑바로 보고 진실을 오도하는 유치한 놀음을 견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3. 18.

- **유엔에 꼬리잡힌 북 제재회피 꼼수…5억원대 다이아몬드 수입도(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300쪽에 달하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지난해 최소 2억 달러(2천100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힘.
- 해상을 통한 석탄 등의 밀수출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관련 품목 거래와 기술진 파견도 이뤄졌으며 북한 외교관들도 불법 외화벌이에 지속적으로 동원되고 있고, 금수품 거래나 이에 동반되는 금융거래를 위해 제3국인을 내세워 위장회사를 설립했으며,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 30명 이상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이른바 제재품목인 '사치품'도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도로부터 지난해 1~6월 57만8천 달러 규모의 귀금속과 보석용 원석을 수입했고, 이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51만4천 달러(5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최소 4차례 시리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 관련 기술진을 시리아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잠비크와는 'EMKIP'라는 조인트회사를 설립, 수산1, 수산2 등 북한 어선 3척과 40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동원해 새우잡이 어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남.

2018. 3. 20.

■ **방북 日언론인 “北경제 나쁘지 않아…무역거래 등엔 어려움”(연합뉴스)**

- 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1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다는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편집위원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RFA 취재진에 “그다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라고 주장함.
- 1년 반 만의 방북이었다는 그는 “슈퍼마켓이나 상업시설에 가보면 상품도 많이 있고, 식품, 일용품, 생필품 이런 것들은 북한 국산품이 늘어났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함.
- 그러나 후쿠다 편집위원은 자신이 만난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가 경제제재로 인해 “무역거래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금융, 특히 외부에서 금융거래가 어려워졌다. 또 하나는 투자가 거의 안 온다, 그리고 요새 과학기술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2018. 3. 22.

■ **“北토지생산성 1990년 수준 연구기관 분석 나와”(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1일 공개한 ‘2018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2018 Global Food Policy Report)에서 지난 2014년 기준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ha당 1천536달러였다고 분석함(토지 생산성은 1ha의 토지 면적에서 얻는 농업소득을 의미함).
- 1990년 기준 북한의 토지 생산성인 1ha당 1천532달러와 비슷하다고 RFA는 지적했으며, 다만 2000년(1천294달러)과 2010년(1천416달러)보다는 상승함.
- 북한 농업의 지난 2014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농민 1인당 1천376달러로, 이 연구소가 조사한 아시아 지역 32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인 2천183달러를 밑돌았으며, 농업 관련 노동생산성은 농민 1명이 1년 동안 생산한 곡물을 달러로 환산한 가치라고 RFA는 전함.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8. 3. 17.

- **“北, ‘아리랑 공연’ 올해 재개…중단 4년만”(연합뉴스)**
 - 베이징에 있는 ‘고려 투어스’와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인 ‘백두문화교류사’ 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양에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아리랑 공연 재개를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RFA는 “(이들은) 올해 아리랑 공연이 재개된다는 사실은 확정됐다면서 개최 장소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소개함.
 - 이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9월 9일 70주년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아리랑 공연을 재개 하는 것 같다”고 설명함.
- **서울엔 ‘따릉이’, 평양엔 ‘려명’…평양서도 공유자전거 인기(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지난 15일 “올해 1월부터 평양의 광복거리에서 자전거 공동 이용체 계에 의한 자전거 임대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광복거리의 다섯 개소에 자전거 임대소(대여소)가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광복거리에서는 자전거 임대봉사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출근길과 퇴근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연로자들도 운동 삼아 매일 타고 있다”고 전함.
- 리광철 평양자전거 임대관리소 실장은 조선신보에 “수도의 각 구역마다 자기네 구역에는 언제 자전거임대소가 나오는가 하고 쉴 새 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자전거 임대봉사의 면적을 늘리고 봉사방법을 더욱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3. 20.

■ 헬싱키서 북미 연이를 만찬회동...“북측, 남측에 믿음 강해 보여”(연합뉴스)

-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남북한과 미국의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앞서 핀란드 외교부 초청으로 헬싱키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이뤄졌으며, 이날 만찬에는 최 직무대행을 비롯한 북측 참석자 6명 등 남북미 참석자 18명이 대부분 참석함.
- 만찬에서는 각각 4, 5월에 예정된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참석자들은 북측 인사들이 남측에 대한 믿음이 강해 보였다는 인상을 전함.
-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여러 국가가 관련돼 있는데, 남측을 믿는 것 같았다”고 전했으며, 특히, “북측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5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무사히 열릴지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본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함.

2018. 3. 21.

■ RFA “美해안경비대, 北관련 선박 200척 이상 감시 중”(연합뉴스)

- 미 해안경비대의 알라나 밀러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방송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CAATSA)’에 따라 북한 선박 전체를 제재와 감시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 2월 8일에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힘.

- RFA는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300t 이상의 모든 선박이 감시 대상이며, 밀러 대변인이 국무부가 감시 선박 명단을 작성했고 인터넷에 매달 갱신된 제재 명단을 공개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RFA는 이달 13일자 명단을 토대로 제재 대상인 북한 관련 선박이 218척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국무부와 해안경비대가 북한 선박으로 파악한 것이 198척 이고, 나머지 20척은 북한 국적 선박임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배들이라고 RFA는 전함.

2018. 3. 22.

■ **北신문 “美, 인두겁 쓴 야수…적대시정책 변할 수 없어”(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미제는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 인두겁을 쓴 야수”이므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각성’을 높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의 교활한 책동에 의하여 어제 날에는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졌고 오늘날에는 이라크와 리비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 정책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이어 “시대가 전진하는 데 따라 혁명 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미제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급적 각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요구함.

2018. 3. 23.

■ **北신문 “美 대북제재 유지는 적대정책 철회 않겠다는 것”(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3일 ‘부질없는 제재압박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케케묵은 제재압박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 흐르고 있는 좋은 분위기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때문에 조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거론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그것을 되받아넘기며 ‘현 조선반도 정세 분위기는 대조선(대북)제재가 은(효과)

- 을 내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제재소동에 환장한 자들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나발"이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8. 3. 18.

■ 北매체, 日에 대북정책 재고 압박...“평양행 차표 못구할수도”(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대세를 모르면 닭 쫓던 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까지 미국 상전이 내든 최대의 압박 정책 수행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날뛰어 온 것이 바로 일본 반동들"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이어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대세를 바로 보고 대조선(대북) 정책을 놓고 숙고해야 할 때"라며 "우리는 이미 일본 반동들이 분별을 잃고 계속 못되게 놀아대다가는 영원히 평양행 차표를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하여 경고하였다"고 밝힘.
- 이 논평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및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일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나온 것임.

라. 북·러 관계

2018. 3. 22.

■ 북·러, 경제협력위 의정서 조인...양국 경제협력 방안 논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인되었다"고 밝힘.
-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북측 위원장인 김영재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함.

- 갈루슈카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에게 오는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하면서 “우리는 교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점을 찾아야 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오는 9월 11~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 대표단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 대표단도 이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초청한다”고 밝힘.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3. 17.

■ 북·스웨덴, 17일까지 회담 연장…“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르고트 발스트롬 스웨덴 외교장관은 당초 15, 16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17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발스트롬 장관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의 스웨덴 정부 영빈관 건물로 주(駐)스웨덴 한국·미국대사관 인근에 있는 ‘스톡홀름 빌라’에서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 대해 “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함.
- 발스트롬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자세한 회담 내용에 대해선 함구함.

2018. 3. 21.

■ 베트남 “안보리 제재 따라 특정품목 대북 수출입 일시 중단”(연합뉴스)

-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중단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21일 나타남.
- 보고서는 또 2017년 11월 북한산 석탄을 비롯해 안보리 금지 품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북한

- 으로 표기된 선박의 소유나 임대, 운영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 국적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3.17	한미FTA 3차협상 이틀째 진통...귀국 미루고 다음주 협상 계속(연합뉴스)	
	03.20	軍, 한미연합훈련 계획 발표..."4월1일 시작, 예년과 유사 규모"(연합뉴스)	
	03.21	한미공군, 5월 '맥스언더' 연합훈련..."독수리 연습과는 별개"(연합뉴스)	美, 한국에 또 통상압박...철강 선재에 41% 반덤핑 관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3.20		리커창 "한반도 비핵화 위해 최선...각국 성의 보여야"(연합뉴스)
	03.22	한중FTA 후속협상 시작..."제2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3.17		남북미대화에 日 가세할까...판 커지는 '한반도의 봄'(연합뉴스)
	03.18		고노외무상, 강경화 장관에 남북회담서 남치문제 제기 요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3.18		중국방부, 美의 '대만여행법'에 강력 반발...“내정 간섭말라”(연합뉴스)
	03.21	시진핑 “분열 불용” 경고한 날, 미국 고위관리 대만 전격방문(연합뉴스)	
	03.22	트럼프, 내일 중국에 초강력 ‘관세 패키지’ 서명...무역전쟁 점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3.17		日외무상, 펜스 美부통령에 북미회담서 ‘남치문제’ 제기 요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3.21	트럼프, 푸틴 재선 축하...‘한반도 비핵화’ 강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3.22	日언론 “中해경, 軍지휘체계 편입...센카쿠 긴장 우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03.17	中외교부장, 러 외무차관 만나...“한반도 문제 조율 강화해야”(연합뉴스)	
	03.19	깊어지는 시진핑·푸틴 ‘밀월’...당선되자 곧바로 축전·전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03.17		러시아외무 "日 도입 요격미사일, 러일평화조약 협상에 장애"(연합뉴스)
	03.19	아베, 푸틴 대통령 재선 축하...“쿠릴 4개섬 공동경제활동 하자”(연합뉴스)	
	03.21	러·일 외무장관 회담...“쿠릴 4개섬 공동경제활동 협의 속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3. 17.

■ 한미FTA 3차협상 이틀째 진통…귀국 미루고 다음주 협상 계속(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상에서 이틀째 주요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임.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원산지 등의 세부 분과별로 협상을 계속함.
-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FTA 개정 협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전해짐.

2018. 03. 20.

■ 軍, 한미연합훈련 계획 발표…“4월1일 시작, 예년과 유사 규모”(연합뉴스)

-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미뤄던 연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습을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함.
-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은 올림픽 정신에 기초해 일정을 조정했던 2018년 키리졸브를 포함한 연례 연합연습 재개에 동의했다”며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3월 20일부로 북한군에 연습 일정과 본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연습임을 통보했다"며 "연습간 관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해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8. 03. 21.

■ 한미공군, 5월 '맥스선더' 연합훈련…“독수리 연습과는 별개”(연합뉴스)

- 한미 양국 공군이 오는 5월 연례적인 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할 예정임.

-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 사령부가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전투기 F-15K와 미 공군 F-16을 비롯한 항공기 약 100대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대항군을 편성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공중전 기술을 배양할 방침.

■ **美, 한국에 또 통상압박·철강 선재에 41% 반덤핑 관세(연합뉴스)**

- 미국이 또다시 한국 제품을 상대로 4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임.
- 미 상무부는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국가 업체가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힘.
- 상무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전함.

나. 한·중 관계

2018. 03. 20.

■ **리커창 “한반도 비핵화 위해 최선·각국 성의 보여야”(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 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완화된 것을 환영하고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 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대화와 담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함.
- 그는 중국이 계속해서 북핵 6자회담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주장을 수호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함.

2018. 03. 22.

■ **한중FTA 후속협상 시작…“제2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연합뉴스)**

- 중국 서비스시장 문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힘.
-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다. 한·일 관계

2018. 03. 17.

■ **남북미대화예도 가세할까…판 커지는 ‘한반도의 봄’(연합뉴스)**

- 북, 북미 정상회담이 4~5월 잇달아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018년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식민지 배상 성격으로 받게 될 대규모 일본 자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한일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

2018. 03. 18.

■ **고노 日외무상, 강경화 장관에 남북회담서 납치문제 제기 요청(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7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4월 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워싱턴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함.
- 강 장관은 “납치문제에 대해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3. 18.

■ 중국방부, 美의 ‘대만여행법’에 강력 반발…“내정 간섭말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하는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18일 담화를 내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함.
-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우첸(吳謙)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강조함.
- 우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간에 체결된 3개 공동 코뮈니케(공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중미 양국의 양군 관계 발전의 분위기를 해쳤다”고 불만을 토로함.

2018. 03. 21.

■ 시진핑 “분열 불용” 경고한 날, 미국 고위관리 대만 전격방문(연합뉴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사실상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인용, 알렉스 워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20일 대만을 방문해 22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후 수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대만여행법에 따르면 미 고위 관리들은 대만으로 여행해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관료도 미국을 방문해 미 공무원들과 접촉할 수 있음.

2018. 03. 22.

■ **트럼프, 내일 중국에 초강력 '관세 패키지' 서명...무역전쟁 점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중국을 겨냥해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對美)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력 경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임. 중국도 곧바로 보복에 나설 방침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생김.
-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12시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30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힘.
-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훔치거나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시장을 왜곡한 일들에 대한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내일 발표한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8. 03. 17.

■ **미외무상, 펜스 美부통령에 북미회담서 '납치문제' 제기 요청(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5월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펜스 부통령과 20여 분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함. 이에 펜스 부통령은 “미·일은 100% 함께 있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포함해 양국이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함.
- 펜스 부통령과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최대한의 압력과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다. 미·러 관계

2018. 3. 21.

■ 트럼프, 푸틴 재선 축하…‘한반도 비핵화’ 강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했다고 백악관이 전함.
-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3월 18일 재선을 축하했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힘.
-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논의했으며 국가안보 우선 사항과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공유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8. 03. 22.

■ 日언론 “中해경, 軍지휘체계 편입…센카쿠 긴장 우려”(연합뉴스)

- 일본은 중국이 해경국 부대를 무장경찰(무경) 부대로 편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군 지휘하에 두기로 한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음.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당정기구 개편에서 해경국 부대를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시키기로 함.
- 무장경찰은 올해부터 군의 지휘 아래 놓여 있어 해경국 부대가 중국 해군과 공조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은 전망함.
-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해경국이 지금까지는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부 지도를 받았지만, 무장경찰에 편입시 군의 관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함.

마. 중·러 관계

2018. 03. 17.

■ 中외교부장, 러 외무차관 만나…‘한반도 문제 조율 강화해야’(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쿨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 야 한다고 강조함.
-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지난 1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모르글로프 차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올해는 중러 간에 중요한 교류들이 예정돼 있다”면서 “양측은 공동 노력을 통해 중러 관계가 신시대에 성과를 내고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디 격려와 지지를 할 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중러 양측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2018. 03. 19.

■ **깊어지는 시진핑·푸틴 ‘밀월’…당선되자 곧바로 축전·전화(연합뉴스)**

- 장기 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4기 도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당선되자마자 축전을 교환하고 전화통화까지 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함.
- 시 주석은 축전에서 “현재 중러 전면적 전략 합작 동반자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상호 존중과 공평 및 협력 공영이라는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모범을 보였다”고 말함.
- 푸틴은 이번 대선 승리로 오는 2024년까지 24년간 러시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시 주석 또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짐.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양국 정상 간 친밀함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바. 일·러 관계

2018. 03. 17.

■ **러시아외무 “日 도입 요격미사일, 러일평화조약 협상에 장애”(연합뉴스)**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지상배치형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가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1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과 회담을 앞둔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략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확대하고 전진하기 위해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일본에

배치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 미국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해선 러시아 측에 잘 설명,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말함.

2018. 03. 19.

■ 아베, 푸틴 대통령 재선 축하…“쿠릴 4개섬 공동경제활동 하자”(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재선을 축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전화통화에서 일본-러시아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공동경제활동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함.
-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선거 전 러시아 여론을 의식해(쿠릴 4개섬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 내에서 쿠릴 4개섬 문제의 해결에 푸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함.

2018. 03. 21.

■ 러·일 외무장관 회담…“쿠릴 4개섬 공동경제활동 협의 속도”(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1일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실무협약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측은 또 오는 5월 하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확인함.
- 특히 양국 외교장관은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양국 정상이 모스크바에 있는 러일 문화교류의 해 개최식에 함께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16	국무부, 북 억류 미국인 “빨리 돌아오게 노력 중”(자유아시아방송)
	3.23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장기 억류에 영사접근도 안 돼(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3.19	北신문, 인권문제 지적에 “지도부 전복 목적” 주장(연합뉴스)
	3.20	북 15살 미만 소녀들, 성폭력 대상으로 고통 심해(자유아시아방송)
	3.21	미 식량연구소 “북 농업생산성 아시아 평균의 60% 수준”(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3.22	북한인권단체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돼야”(미국의소리)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3.17	일본 “미북 정상회담 납북자 문제 다뤄야”(미국의소리)
대북지원	3.21	미국인 신부, 북한 결핵 치료 지원 20년…4월 말 방북(미국의소리)
	3.22	유진벨재단, 5월 방북 예정…이달 초 北에 결핵약 반출(연합뉴스)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3. 16.

■ 국무부, 북 억류 미국인 “빨리 돌아오게 노력 중”(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16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뉴욕채널, 즉 뉴욕대화 통로를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하기로 미북 양측이 사실상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즉답을 피하면서 “노력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시민의 복지와 안전은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이 가능한한 빨리 집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함.
- 줄리아 메이슨 국무부 공보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회의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며 “트랙 2 회의, 즉 전직 관리나 전문가들의 회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주제로 일상적으로 개최되며 미국 정부의 개입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함.

2018. 3. 23.

■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장기 억류에 영사접근도 안 돼(미국의소리)

- 현재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총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임. 이들의 억류는 기간이나 영사접견 등의 면에서 기존의 억류사건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음.
- 침례교 목사인 김 씨는 2001년부터 중국 연길과 북한 나선을 오가며 대북 사업을 하다가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됐으며 2016년 4월 간첩행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 받고 약 2년째 복역하고 있음. 북한에 억류된 지는 29개월 채로,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미국인 최장기 억류 기록임.
- 2017년 4월에는 김상덕 씨가 체포됨.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한 달 동안 초빙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던 김 씨는 출국길에 평양국제공항에서 붙들림.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김 씨가 북한을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행위를 해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적대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2017년 5월에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가 체포됨. 김 씨의 부인 김미옥

씨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려다 체포됐다고 말함.

-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들 3명의 미국인들은 영사접견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3. 19.

■ 北신문, 인권문제 지적에 “지도부 전복 목적” 주장(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미국 등이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지도부 전복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쉬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은 국제법도 인중에 없이 오만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수를 뻗치고 지도부를 전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또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반정부 세력이 현 지도부나 전반적 사회체제를 반대하는 합법적인 선전과 선동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며 “그 나라들이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면 인권을 침해한다고 걸고든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은 그러한 나라들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해당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들을 조작하고 있다. 동맹국, 추종세력들이 여기에 합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함.
- 노동신문은 지난 15일에도 논평에서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대외적 영상을 훼손시켜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계속 확대시키며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다”고 주장함.

2018. 3. 20.

■ 북 15살 미만 소녀들, 성폭력 대상으로 고통 심해(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초 탈북여성들을 인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했던 북한 예술단원들은 중앙당 연회에서 성 접대까지 하게 된다고 보도함. 이들은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임.

- 때마침, 영국 내 북한주민 지원단체인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는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성폭력이 각종 정부기관과 공직자들, 전 사회에 만연하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 작성자인 제임스 버트 조사국장은 특히 북한 내 15살 미만의 소녀들이 학교, 교화소, 강제수용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청년동맹이나 기타 아동단체 등 국영기관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 대상이 돼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2018. 3. 21.

■ **미 식량연구소 “북 농업생산성 아시아 평균의 60% 수준”(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990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은 아시아 가난한 국가들 평균치의 60% 수준이라고 밝힘.
-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21일 공개한 ‘2018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 (2018 Global Food Policy Report)’를 보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2천년대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990년 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함. 이 보고서는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헥타르 당 1천 536달러였다면 1990년 1천 532달러와 비슷하다고 분석함.
-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1천 317달러로 2010년의 1천 231달러 보다 조금 증가했다고 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3. 22.

■ **북한인권단체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돼야”(미국의소리)**

- 한국 내 30여 개 북한인권단체 대표와 탈북민들이 모여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을 촉구함.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청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 제26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청원서를 직접 대통령 비서실로 가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오는 29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3. 17.

■ 일본 “미북 정상회담 납북자 문제 다뤄야”(미국의소리)

- 일본 정부는 4월과 5월 차례로 예정된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미국과 한국에 잇따라 요청함.
- 미국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16일)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미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함.
-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함.
-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2002년 평양선언에 기초해 핵·미사일, 납치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함.
- 한편,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다나카 미노루가 북한에 있는 사실을 북한 측이 2014년 일본에 확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7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5. 대북지원

2018. 3. 21.

■ 미국인 신부, 북한 결핵 치료 지원 20년...4월 말 방북(미국의소리)

-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제럴드 해먼드 신부는 유진벨 재단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온 해먼드 신부. 방북할 때마다 평양과 남포,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12개 진료소, 요양원을 돌며 1천500명에서 2천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음.

- 해먼드 신부는 유진벨 재단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원산 등 지역에 진료소를 늘려나가길 원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재단에 이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 등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함.
-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해먼드 신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가톨릭 평신도 단체 ‘콜럼버스 기사단’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희망상’의 상금 10만 달러를 북한 결핵환자들을 위해 기부함. 자금은 결핵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20% 환자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원 설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요양원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대북 제재로 보일러 시설 등 건축자재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해먼드 신부는 오는 4월 30일 53번째 방북길에 오르며, 요양원 건설을 둘러보고 12곳 진료소를 방문해 결핵환자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2018. 3. 22.

■ 유진벨재단, 5월 방북 예정...이달 초 北에 결핵약 반출(연합뉴스)

-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은 대표단이 오는 5월 1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방북한다고 22일 밝힘.
- 재단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표단이 5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재단이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방문의 차원”이라고 말함.
- 또 “이달 초 다제내성 결핵 환자 1천500~2천 명이 6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치료 약 등을 배편으로 북한에 보냈다”며 “통일부의 대북물자반출 승인은 지난 2월 말에 이뤄졌다”고 설명함.
- 재단은 이번 방북 기간 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제내성 결핵 센터 12곳을 방문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만나고, 반출된 결핵약과 기타 지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임.